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공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

국립극단 청소년극
단막극연작

트랙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2022 [트랙터]

작

한현주 허선훈 나수민

연출

권영호

공연 기간

2022. 5. 19(목) - 2022. 6. 12(일)

공연 장소

소극장 판

주최/제작

국립극단



7906 버스

7906 Bus

한현주 작
by HAN HYUN CHU

늦은 밤, 7906번 마지막 버스. 얼마 남지 않은 종착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버스에는 고등학생 세영과 은호, 그리고 운전기사 자영만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고장이 난다. 셋은 곤란해진다. 하필 근린공원 정류장에서 버스가 멈췄기 때문이다. 사흘 전 이 정류장에서 셋은 황당한 사고를 겪었는데...

Late at night, there are three people in the last 7906 bus for the day: Seyeong and Eunho who are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bus driver, Jayeong. The bus is close to its final destination, but it breaks down, and not only that, it breaks down at the bus stop next to the neighborhood park. At this bus stop, something happened to them three days ago...

작 | 한현주

작 <집집 : 하우스 소나타> <괴물 B>
<잔다리 건너 제물포>
<개천의 용간지>
<유산균과 일진> <그 샘에 고인 말> 외
각색 <소년이그랬다>
수상 2022 제58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집집 : 하우스 소나타>
| 2011 제1회 벽산희곡상
<878미터의 봄>

청소년 관객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것은 내게 또 다른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솔직히 좀 두려울 때도 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얘기가 될까 봐.

그렇고 그런 어른의 주절거림이 될까 봐.

재미없을까 봐.

재미만 있을까 봐.

등등.

이렇게 적고 보니 작가로서 엄청 눈치를 보는 거 같다.

하지만 눈치 좀 보자는 생각도 든다.

청소년극이 귀하니까.

극장에서의 귀한 만남을 기대해본다.

빵과 텐트

Bread and Tent

허선헤 작
by HEO SEON HYE

‘기아체험 24시’가 한창 진행 중인 한 캠핑장. 배우는 자신의 텐트에서 몰래 챙겨온 빵을 먹으려한다. 그때 한 아이가 텐트 안으로 침입한다. 배우의 팬이라고 하는 아이. 아이는 배우의 손을 잡고 텐트 밖으로 나선다. 함께 ‘몸’을 찾아달라고. 배우는 엉겁결에 아이의 ‘몸’을 찾는 기이한 여정을 함께 하기 시작한다.

At a camp site, people are in the middle of starvation experience. An actor goes into his tent away from everyone's eyes to eat a piece of bread he brought. A child walks into the tent out of the blue, saying he is a fan. And the child walks out of the tent, holding the actor's hand, and the child asks the actor to help him find his body. Baffled, the actor begins a bizarre journey of looking for the child's body.

작 | 허선헤

작 <지장이 있다> <영지>
<햄스터 살인사건>

‘비어있는 것’과 ‘없는 것’, ‘사라진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좀처럼 끼워 맞춰지지 않는 분열된 감각들을 주로 떠올려보았습니다. 본체 없이 방황하는 존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세계는 나를 위한 공간을 쉽사리 내어주지 않고 내 마음 속에도 나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완결이 없고 삶은 좀처럼 정돈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겠지만 죽기 전까지도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떠도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끌어주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끌려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그 순간의 기쁨이고 활력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5살 때 참여했던 기아체험 24시, 몰래 챙겨가서 먹었던 빵, 새벽까지 빛나던 경기장 불빛, 생경한 풍경 속에서 이어지던 뜻밖의 만남들이 작품 안에 녹아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아직까지도 꽤 구체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체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밤을 새며 경험한 것들은 현실보단 꿈에 가까운 것들이었는데 꿈은 아니었습니다. 슬프기도 즐겁기도 한 오묘한 어느 날의 기억입니다.

하얗고 작은 점

A Small, White Dot

나수민 작
by NA SU MIN

“저한테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성암센터 진료실에서 엄마의 유방
X선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강준.
수영장 물속에서 숨을 참고
가라앉아있는 지오.
널 어떻게 보내줘야 하지?
널 대체 뭐라고 해야 하지?
빙글빙글 돌글돌글 쏟아지는
빛 속에서 둘이 마주하자,
세상이 잠깐 멈춘다.

“There is something I need.
I need more time.”
Gangjun is looking at an X-ray
of his mother's breasts in a
doctor's office at the Cancer
Center for Women.
Jio is holding her breath as she
slowly sinks in the swimming
pool.
How can I let you go?
What should I say you are?
The world comes to a stop for
a while when Gangjun and Jio
face one another in the dazzling
light which spins and swirls
around them.

작 | 나수민
작 낭독극 <99%
천재일기>

청소년기에 우리는 뭔가를 (생각보다) 자주 뚫는다.
초등학생 땐 샤프나 컴퍼스로 지우개에 자잘한
구멍을 뚫었고, 중학생 땐 발차기로 교실 뒷문에 오각형
구멍을, 고등학생 땐 교실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창문을 뚫었, 아니, 깎다.

이런 거창한 기억이 아니더라도 이유 없이 종이를
뚫거나 풍선을 뚫거나 책상에 구멍을 뚫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뚫는 일은 머리로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무언가를 뚫고 그 다음으로 가는 일. 그 일만
하기에도 청소년은 무척 바쁘다. 데굴데굴 굴임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너 그 시간 진짜 빨리 간다”라는 이상한 예언을
해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무엇이 될지 결정하기도
전에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내 몸 안에서, 잠깐 모든 걸
멈추고.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아닌 채로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도 함께, 지금, 여기, 잠깐 멈춤.
그럴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 등장인물
세영 고1, 여
은호 고1, 남
자은 44세, 버스 기사, 여

■ 무대
중심 공간은 버스 안이다.
무대 좌우를 가로질러 두 줄로
의자가 놓인다.
물론 이 위치와 방향은
장면마다 적절히 바뀌어 버스
안을 형상화할 수 있다.
다만 이 작품에서는 세 명의
배우가 앉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자은은 왼쪽 맨 앞의 기사석에
앉는다.
자은 뒤로 다섯 번째 좌석에
세영이 앉는다.
그리고 반대편 줄 앞에서 두
번째 좌석에 은호가 앉는다.
그리하여 세 사람의 위치는
삼각 형태를 띤다.

버스 밖의 공간은 정류장과
근린공원 입구로 나뉜다.
정류장은 무대 뒷벽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엘터가 부서져
있다.
위험을 알리는 노란 줄리스
라인 테이프가 둘러 있다.

근린공원 입구는 객석과
가까운 무대 앞쪽이다.
벤치가 하나 놓여 있다.

프롤로그

한여름 밤의 버스 안.
자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운전하고 있고
세영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다.
반대편에 앉은 은호는 공부
내용을 메모한 수첩을
들여다보며 외우고 있다.
세영과 은호는 서로 다른
하절기 교복을 입고 있다.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리는
소리.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
이어 ‘월광 소나타’의 1악장이
흘러나온다.

사이

(이하 생략)

■ 등장인물
배우
아이

1. 기아체험24시 캠핑장

기아체험24시가 진행 중인
난지캠핑장. 텐트 하나에
배우가 들어온다.
배우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방을 열고 빵을 꺼낸다.
빵을 한 입 베어 물려고 할 때,
텐트 지퍼가 열리며 아이가
들어온다.

아이 어, 배우님. 이거
배우님 텐트였구나.
안녕하세요.

배우 네.

아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며)
다른 텐트들하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빈 텐트구나
생각하고 들어온 건데.
일부러 다른 텐트들하고
좁 떨어져있는 거구나.
이런 거 참여해도 그래도
배우로서 프라이버시는
있고 하니까.

배우 네, 뭐, 좀. 네.

아이 저 배우님 진짜
팬이에요.

배우 네, 감사합니다.

아이 아니, 빈말이 아니라
진짜요. 저 배우님
나온 거 진짜 다
봤어요. 최근에 현정원
감독님과 같이
하신 〈말린 포도와
붉은 바람〉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그
전에 〈소라의 정원〉

〈설악산〉 〈호랑이는 사실
귀뚜라미의 후손이다〉
다 봤고요. 며칠 전에
기사 난 것도 봤는데
연극 하게 되셨다고.
진짜 저 꼭 보러 갈
거예요. 매일매일 보러
갈 거예요.

배우 네, 진짜 팬 맞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예요. 진짜. 이런,
기아체험24시 이런 것도
참여하시고. 배우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거 한다고
인스타 같은 데 올리면
저희 같은 팬들이 영향
엄청 많이 받고 또 같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온 거거든요.

배우 네.

아이 솔직히 24시간 굶는
거 쉽지 않고. 네. 진짜
어려워가지고. (빵을
본다)

(이하 생략)

■ 등장인물

강준 14살 남자

지오 14살 여자

의사 유방암센터 의사

엄마 40대 후반 여자,

강준의 엄마

원경 30대 후반 여자

욱 30대 초반 남자

■ 때

현대

■ 곳

진료실, 수영장 탈의실,

암센터 로비, 물속

1. 진료실

의사, 차트를 보며 테이블 앞에 앉아있다. 테이블 위에는 모니터가 있다.

엄마, 맞은편에 앉고 강준 그 옆에 서 있다.

의사 (차트 보다가) 그래, 자, 앉으세요.

강준, 계속 서 있다.

의사, 강준을 본다.

의사 보호자. 앉으시라고요.

강준 저요? 어, 네, 근데 의자가 없는데.

의사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괜히 의자 찾는 척한다)

엄마 (앉으라는 듯 자기 무릎 두드린다)

강준 아, 저 그냥 서 있을래요.

강준,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붙어선다.

의사 그래요, 그럼, 자 이제 한 번 봅시다.

의사, 모니터에 X선 사진을 띄운다.

강준, 자기도 모르게 모니터 쪽으로 몸을 확 기울인다.

의사 이쪽이 유방을 위아래로 눌러 찍은 거, 그리고 이쪽이 좌우로 눌러 찍은 사진이고요.

강준 (놀라) 치밀유방이다.

엄마 웬? 그게 뭐예요, 선생님?

강준 가슴에 지방은 적고 유선조직은 많은 걸 치밀유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치밀유방이 많대.

지금 이렇게 엄마 가슴이 하얗게 보이는 것도 유선조직이 엄청 촘촘해서 그런 거고. 근데 치밀유방은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의사 아...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보호자, 조금만 뒤로 갈까요.

엄마 결절은 어느 쪽에 있어요?

의사 우리가 봐야 할 건 왼쪽 유방인데요, 여기 이 안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강준 어디요?

의사 여기, 여기 유방 한가운데에 하얀 곳.

사이

(이하 생략)

드래क्टर =

7906

버스 +

빵과 렌트

+ 하얏고

작은 점

**박은경 PARK EUN GYEONG**

배역 자은, 아이, 지오

연극 <터키행진곡> <누룩의 시간> <용선>
<무릎을 꿇었는데 거드랑이가 따끔하여>
<자전거도둑헬멧을 쓴 소년> <구멍을 살펴라>
<숨통> <자연사 박물관> 외

**송석근 SONG SUK GEUN**

배역 배우, 의사, 육

연극 <만선> <스웨트> <X의 비극>
<햄릿(온라인극장)> <들꽃찾아> <짬뽕> 외
뮤지컬 <서울의 달> <장 담그는 날>
영화 <호수의 남자>

**신윤지 SHIN YOON JI**

배역 세영, 엄마, 원경

연극 <툭> <트랜스!> <커튼> <청년부에 미친
헤인이> <홍평국전> <밤에 먹는 무화과> <제 4의
벽> <미국 연극/서울 합창> <궁극의 맛> <포스트
아파트>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 2 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외

**최상현 CHOI SANG HYUN**

배역 은호, 강준

연극 <몹시, 여름>
뮤지컬 <단상>
영화 <쇼미더고스트> <시민덕희> <세자매>
방송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뿐>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터]는 ‘뜻밖의 마주침’이라는 테마로 세 명의 작가들과 함께 준비한 작품이다. 작가들과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세 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대본이 나왔다.

- 한현주 작가의 〈7906 버스〉
- 허선훈 작가의 〈빵과 텐트〉
- 나수민 작가의 〈하얏고 작은 점〉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 편의 이야기가 담긴 대본을 받아들고 ‘어떻게 연출할까?’라는 즐거운 고민이 시작됐다. 그런데 뜻밖의 난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들이 종착역에 도착해보니 서로 다른 길로 뻗어있음을 발견했다. 서로 다른 세 편의 이야기를 [트랙터]라는 하나의 공연 안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 고민 또 고민 그리고 결론.

통합 보다는 독특함.

각각의 개성을 뽐내는 이 이야기 세 편을 하나의 일관된 주제나 형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 차라리 각각의 단막극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과 향기를 발산하도록 돕는 것을 연출의 지향점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트랙터]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세 편의 단막극이 가진 이야기 그 자체이지 그 안에 내포된 주제이거나 숨겨진 의미가 아니다.

중첩되는 이야기들.

이 작품은 단막극 연작이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무대 위에 이야기를 풀어내고 싹 지워내고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이 때, 무대 위에는 앞의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있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이 작품에서 이야기들이 서로 완벽하게 따로 있지 않고 중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야기 위에 또 다른 이야기가 겹쳐진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처럼... 그런 와중에 이야기가 매번 새롭게 변신을 하기도 하고 더욱 더 깊어지기도 한다. 아무쪼록 이 작품을 보러와 주시는 관객들도 따로 있지만 중첩되기도 하는 신비한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기를...

연출 | 권영호
GWON YOUNG HO
극단 파블라토르 대표 및
연출
연극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
〈오뒷세우스〉 〈하프라인〉
〈불장난〉 외

트랙터, 시동을 걸다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터]가 올라간다. 한현주, 허선훈, 나수민 작가의 세 작품 〈7906 버스〉 〈빵과 텐트〉 〈하얏고 작은 점〉이 나란히 올라간다. 연작 제목은 [트랙터]이다. 매끈한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땅을 갈고 농사짓는 트랙터이다. 툭툭툭툭 푸른 들과 산을 누비며 자기만의 밭을, 자기만의 산을 가꾸는 작업차이다. 지난 해 10주년을 치른 국립극단 청소년극의 새로운 출발 의지를 담은 제목이다. 30분 이내 짧은 단막극 3편, 훨씬 힘 뻗 가벼운 발걸음이다. 마침 길었던 코로나19를 지나 일상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다.

〈7906 버스〉, 그날 이후 일상의 시간에 자꾸 시동이 꺼진다

한여름 밤 버스 안, 차고지로 들어가는 낯은 버스 안이다. 막차다. 시동이 꺼졌다. 버스기사 자은과 차고지 근처 사는 두 아이, 세영과 은호만 남았다. 세영은 왜 하필 이곳이냐고 불안해한다. 3일전 이곳에서 사고가 있었다.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쓰러져 지나던 버스를 덮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날따라 돼지갈비 냄새 푹푹 풍기는 술 취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며 한참 미적대다가 막 내리던 참이었다. 돼지갈비 아저씨가 앉았던 자리는 완전 박살이 났다. 100kg이 넘는 크레인 고리 부분이 아저씨가 앉았던 자리를 찍어 눌렀다. 세영은 바로 뒷자리였다. “전국에 있는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은호는 인터넷 기사 검색 내용을 담담하게 읊지만 그날 이후 사고 굉음 소리의 이명에 시달린다.

〈7906 버스〉는 ‘그날’의 사고 이후 일상을 다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야기다. 3일 전 버스 사고, 2년 전 사거리 중학교 앞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리고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고는 3건이지만 은호가 특별한 계기 없이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설정에서 2014년 세월호 학생 참사가 오버랩된다. 이후 세대에게는 소풍도, 수학여행도, MT도 없었다. 성격 밝은 세영도 마음속으로 신(神)을 원망하고 있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도 1995년 4월 영남중고교 앞 사거리에서 있었던 사고이다.

작품 속에는 버스에 시동 거는 장면이 세 번 나온다. 하필이면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시동이 꺼지고, 멈춘 버스를 고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시동이 걸리면서 버스는 출발한다. 사고 이후 일상의 시간에 자꾸 시동이 꺼진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두 아이와 한 어른, 누가 누구 쉽게 위로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다. 각자 고통 앞에 동등하다. 자은은 79년생, 교통사고로 죽은 자은의 딸 민주와 아이들은 06년생이다. 그렇게 7906 버스는 다시 시동을 걸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달린다. 작품은 잠시 시동이 꺼졌던 그 순간, 이들이 함께 있었던 그 자리를 보여준다. 후덥지근한

여름밤 공기, 돼지갈비 냄새, 2년 동안 꼬깃꼬깃 접혀있었던 지폐의 접힌 주름, 일상의 접힌 부분들을 잠시 같이 들여다본다.

〈빵과 텐트〉, 배우님은 아무 것도 없어서 좋아요

〈빵과 텐트〉는 이인극이다. 배경은, 기아체험 24시 행사가 열리고 있는 캠핑장이다.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사이, 적당히 애매한 유명세를 가진 한 배우도 이 행사에 참여했다. 당연히 인스타에도 소식을 올렸다. 배우는 이렇게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유명해졌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 몰래 가져온 빵을 막 먹으려는 순간, 한 아이가 텐트 안으로 들어온다. 딱 걸렸다. 아이도 배가 고프다고 한다. 게다가 자신이 배우의 '찐팬'이라고 하며 배우가 출연했던 독립영화 제목까지 줄줄줄 외운다. 그래도 빵을 나눠먹기엔 너무 배가 고프다. 배우는 혼자 빵을 먹겠다고 하고, 아이는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한다. 배우가 찢절매자 아이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같이 가달라고 한다.

황당하게도 아이가 잃어버린 것은 자신의 몸이라고 한다. 텐트 지퍼를 열 때마다 시칠리아 해변, 무너진 성당의 돌무덤, 연필 속 나무와 흑연 사이, 앞으로 쓰일 일기의 맨 첫 단어 '오늘'의 '오' 속 세계가 펼쳐진다. 배우는 난데없이 바닷물도 뒤집어쓰고, 돌무덤 꼭대기에도 오르고, 나무와 흑연 사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계에도 갇힌다. 배우는 좀 편한 곳을 찾아볼 순 없을지 사정하고, 아이는 그런 곳엔 자기 몸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자기의 몸은 분명 구석에, 모서리에, 실선 사이에 있다고 말한다. 배우는 힘들다. 많이 힘들다. 나는 어딘가에 가닿는 데에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다. 자책도 한다.

그런데 아이가 또 정색하며 말한다. 저는 배우님이 아무것도 없어서 좋아요. 어떤 역할을 맡아도 다 똑같고, 연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고, 그래도 그래서 좋다. 선볼리 뭘 만들려고 하지 않아서 좋다. 놀리는 말이 아니다. 진심이다. 그래도 배우는 믿지 못한다.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과 아이 이야기가 떠오른다. 배우는 아이 몸을 찾는 일이 꼭 자기 몸을 찾는 일처럼 느껴진다. 아이가 빵, 터져 산산조각 나 사라졌을 때 눈물도 팔팔 쏜다. 내가 없었던 곳에서 나를 다시 찾는 일,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일,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다. 산산이 부서진 내 몸을 다시 잘 모아 물을 부어 반죽하면 된다고 아이가 다시 가르쳐 준다. 어른이 아이 같고, 아이가 어른 같은 이야기다. 배우 2명의 움직임만으로 많은 것을 채우는 공연이다.

〈하얏고 작은 점〉, 가끔은 거짓말 같은 이런 순간들도 필요해

〈하얏고 작은 점〉은 유방에 관한 이야기다. 〈빵과 텐트〉에서 찾아 나섰던 몸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빵과 같은 것이었다면, 〈하얏고 작은 점〉의 몸은 암 덩어리가 될 지도 모르는 결절이 생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몸이다. 14살 남자 중학생 강준은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은 엄마의 보호자로 유방암센터에 왔다. 강준은 치밀유방과 낭종과 고형 등등 유방암 관련 정보들을 줄줄 외우고 있다. 의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X선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그대로 머리로 모니터를 뚫어버렸다. 유방암은 흔히 대표적인 여성 암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한 점이 흥미롭다.

X선 모니터 속에서 강준은 물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는 지오를 만난다. 일종의 판타지이다. 흰색 수영복에 물안경을 쓰고 둥글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지오의 모습은 마치 X선 촬영사진 속 흰 결절처럼 보인다. 물속으로 잠수해 150까지 숫자를 세고 잠시 멈춘 세상 속에서 강준을 만난 지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오도, 강준과 마찬가지로 14살 중학생이다. 지오는 엄마가 유방암 절제수술을 받고

한쪽 가슴이 없다. 지오는 요즘 갑자기 가슴이 커지고 있다. 고민이 많다. 그런데 엄마와 이 얘길 할 수 없다. 유방암은 유전확률이 높아 엄마의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지오는 너무 빨리 변하는 자신의 몸이 불안하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멈추고 싶다.

지오는 잠깐 멈춘 시간 속에서, 강준은 X선 모니터 속에서, 하얀 빛의 물결 속에서 잠시 머문다. 언젠가 이게 거짓말이 될 거라는 걸 알아도 지금은 이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강준은 그냥 하얏고 작은 점, 아무것도 아닌 하얀 점을 바라보며 모니터를 뚫는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두 아이에게 잠시 필요했던 이야기이기에 믿게 된다. 〈7906 버스〉에서 버스기사 자은은 2년 만에 되돌려 받은 딸 민주의 만 원짜리 지폐를 바라보면서 딸에게 필요했던 거짓말을 다시 생각해본다. 끈적끈적한 여름밤 차고지, 시칠리아 해변가, 모니터 속 흰 결절의 물결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아직 어떤 의미도 붙이기 어려운 시간들을 동네 한 바퀴 돌며, 물속에서 숨쉬며, 이어 나간다.

밴드 트랙터, 데뷔 무대!

세 이야기는 각각 따로 쓰였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저 톱, 던져놓은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며 생각을 이어가게 한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더 강해진 것일까? 연습실에서 한 작품씩 동선이 완성될 때마다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보여 신기했다. 배우들 연습은 공연 두 달 전 3월에 시작되었지만, 작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함께 작업하며 대본을 써왔다. 한현주 작가는 어느새 이제 자신은 기성세대가 되었다고 말하며, 10대 아이들과 세대가 다른 자은 캐릭터를 작품 속에 꼭 넣고 싶었다고 말한다. 〈영지〉의 허선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이곳저곳 텐트의 지퍼를 열며 세상을 열어가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낯선 세계 속에 뛰어들어 손으로 만지고 반죽하며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수민 작가는 이번 작품이 데뷔작이다. 불안이라는 모니터를 뚫고 무엇이라도 뚫어버릴 기세로 낯선 두 세계를 충돌시키는 데에 거침이 없다.

권영호 연출가는 움직임 연출에 강점이 있다. 〈빵과 텐트〉〈하얏고 작은 점〉은 가장 일찍 장면이 만들어졌다. 〈7906 버스〉는 가장 자신 없었던 작품이지만 가장 공들인 작품이 되었다. 장면마다 섬세한 해석과 감각을 쏟아내었다. 세 작품의 연결지점을 해결해준 것은 가상의 밴드 '트랙터'의 랩 음악이다. 맨 처음의 아이디어는 〈7906 버스〉마지막 장면에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을 가상의 밴드 음악으로 공연에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 작품이 끝나고 나오는 전환음악은 연습과정에서 최상현 배우가 직접 가사를 쓰고 랩을 불렀던 것을 발전시켰다. '몸'을 주제로 한 최상현 배우의 자작시 〈body 운전〉은 〈7906 버스〉의 은호, 〈하얏고 작은 점〉의 강준 이야기와도 오버랩되었다. 〈7906 버스〉세영과 〈하얏고 작은 점〉강준엄마와 원경 역할의 신윤지 배우, 〈7906 버스〉자은과 〈빵과 텐트〉아이와 〈하얏고 작은 점〉지오 역할의 박은경 배우, 〈빵과 텐트〉배우와 〈하얏고 작은 점〉의사와 육 역할의 송석근 배우, 4명의 배우들은 세 작품의 부분 교집합으로, 혹은 확장된 캐릭터로 공연에 묘한 울림을 준다.

김옥란 KIM OCK RAN

드라마트루그, 연극평론가, 극동대학교 교수.

연극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신신방〉〈발가락 육상천재〉〈영지〉〈록산느를 위한 발라드〉〈하녀 빠뻔자매〉〈위대한 놀이〉〈국물 있사옵니다〉 외

수상 2018년 여성기 연극평론가상, 2017년 노정 김재철 학술상, 2014년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드라마트루기 부문)

[트랙터]의 출발, 작가 이야기 = [한현주+허선헌+나수민]

**김미선 [트랙터]가 연습 중반부를 넘어섰네요.
지금까지 여정이 어떠세요?**

한현주 단막극이어서 서로 기댈 수 있고, 성향이 다른 작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발견하는 것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허선헌 작가님도 처음 본 거거든요. 나수민 작가님은 물론이고, ‘우연한 만남’이라는 키워드 말고 다른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 게 어떠한가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운 좋게 약간 다르지만 서로 만나지는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기했고, 그런데 다음에는 작가들한테는 제약이 될 수는 있겠지만, 키워드가 있어도 재미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 재밌었어요.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런데 충분히 자기 색깔 다 드러내시면서 쓰신 것 같구요.

김미선 여타 초연 프로젝트에서 작가분들이 갖는 부담을 연출님과 배우분들이 다 나눠가지셨네요. 허선헌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허선헌 저도 다른 작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작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출님이 많이 열 수 있게 주셨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작업에서 뭔가 원 없이 해봤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갈 때까지 가봐라, 그래서 그럼 진짜 갈 때까지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었어요.

김미선 단막극은 길어도 30분 안쪽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봤다는 것이 재미있는 아이러니네요.

허선헌 다른 작가분들과하고 협업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암흑 속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피드백을 들을 때 주로 걱정과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이 작품 고유의 좋은 지점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소통을 많이 했어요. 제 작품의 좋은 지점을 찾게 되고, 수정방향을 발견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이 작품이 꿰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단막극과 함께 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게 되구요. 마치 트랙터처럼 작품이 서로를 견인해 가는..

나수민 트리트먼트 작업에서 막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혼자 쓸 때는 제 문제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니 써가는 과정에서 덜컥덕거리고 이게 맞나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은 너무 당연한 것이구나 싶고, 저 작가님은 저렇게 헤쳐 나가는구나 아니면 저 작가님은 이런 부분에서 잠깐 멈춰하시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좋은데라는 생각도 들면서 환기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연습 보러 왔을 때 다른 작가분 작품 볼 때 제가 여기에 작가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관객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미선 관객분들이 각 단막극의 기획의도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현주 솔직하게 그냥 어른으로서의 ‘나’가 함께 뭔가 접근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도 청소년기의 생각과 문제 인식이 여전히 지속되는 부분도 있으니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뭔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버스와 크레인은 저의 일상 속에서 겪고, 목격했던 것에서 시작을 한 거구요.

저는 사실 이제 올해 세월호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세월호 공연에 참여도 했고, 몇 주전은 생각했지만, 그걸 의식하면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은호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문득 이제 우리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된 게 아닌가. 제가 겪었던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대형 사고들이 저의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계속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청소년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해와 치유를 위한 노력과 가능성을 서로 발견해내는 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허선헌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지나가지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뜻밖의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성인과 청소년의 만남에서 뭔가 촉발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공감대나 동질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저는 ‘몸’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을 찾는다’ 라는 행위는 비유일 수도 있는데 그 감각은 어린 시절에는 항상 느끼는 감각인 것 같고, 미처 채워지지 못한 조각난 감각같은거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맞춰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맞춰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것을 찾는 여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만들면서 요즘에는 완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이 물론 끝은 있겠지만 이야기가 끝난다고 해서 현실이 끝나는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완결된 자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미완인 존재이고 계속 찾아가는 존재인데 이야기는 완결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환생도 좋아하고요. 아이와 배우의 어떤 상호작용이 서로에게 배우는 것들이 있고 새롭게 찾아주는 감각은 있지만 이야기의 완결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떤 새로운 삶이나 다시 태어나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청소년때 경험했던 ‘기아체험’에서 출발했는데 ‘기아체험’이라는 말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으니 체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는 진짜인 것이고요. ‘배우’라는 존재는 항상 어디에 가닿아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가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뺑’은 이미지 자체로 시작을 했는데 가득 차 있는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꽉 차 있는. 항상 포만감을 주는. 어떤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나수민 유방 엑스선 사진을 보고 그 엑스선에 찍힌 유방의 모양이 사실 여자 남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체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저게 정말 내 안에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낯섦을 느꼈어요. 저것이 내 몸 안에 이미 있고, 함께 산 지 되게 오래됐고. 그런 낯섦이 ‘웃음’과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왜 몸은 ‘웃음’과 쉽게 연결이 될까 늘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이 특히 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많이 웃고 희화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과정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수단 중 하나가 ‘웃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선과 이 희곡에 넣고 싶었던 게 ‘멈춤’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청소년들이 가만히 보면 정확히 뭘 하고 있다고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바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자기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에 바쁘고, 주변에서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간섭을 하고 조언으로 의견을 많이 주는데 과연 그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깐 멈추고, 자기를 살펴보고 싶은 시간이 짧게나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요. ‘강준과 지오가 한 번쯤 멈췄으면 좋겠다’와 ‘유방’이 연결되어서 장면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어른 인물들을 생각을 할 때는 강준과 지오보다 너무 어른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잇는 일이 많잖아요. 그 사실에 당황하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인물들을 그렸어요.

김미선 세 작품을 꿰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한현주 ‘죽음’이라고 적어놨네요.

죽음이 무거운 의미로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7906버스>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어’ ‘그게 나일 수도 있었어’ 이지만 <빵과 텐트>은 ‘생성과 소멸 차원에서’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얏고 작은 점>은 가장 기본적인 몸과 직접 관련이 있고, 강준과 지오가 몸의 변화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느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 죽음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색깔들이 달라서 그런지 어둡지 않게 각기 다른 비유를 담고 가는 것이 신기하고, 우연한 만남이니까 의도치 않은 만남이 당연히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 둘이 만나서, 이 셋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지점에서는 모두 ‘관계’에 대한 키워드는 당연한 것 같아요.

허선헌 저는 ‘순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7906버스>의 동네 한 바퀴도 그렇고 <빵과 텐트>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 그리고 <하얏고 작은 점>에서 점의 동그라미도 그렇고. 처음에는 삼각형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삼각형보다는 동그라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완결된 동그라미가 아니라 조금씩 개체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잡아줘서 연결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청소년 하면 좀 빠르고, 폭발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저희 작품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느리고, 진득하고, 서로를 살피고. 우리가 생각한 만남이 스쳐 지나가고 빠르게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 바라보고 감작하는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트랙터가 시속 최대 40km밖에 못 간다고 해요. 그런데 다양한 걸 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항상 끌어서 가고, 느리지만 다양한 것을 끌어줄 수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 트랙터의 감각이 우리의 작품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묵직하게 끌고 가는.

나수민 오늘 <7906버스> 연습 볼 때

버스 시동 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소리가 자꾸 남더라구요. 첫 번째 작품에서는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멈추고, 그 멈춘 세상에서 두 번째 작품으로 연결이 돼서 잠깐 일상에서 빗겨났을 때 보이는 시선으로 이어지다가 세 번째 작품에서는 다시 시동을 거는데 어디를 가려고 한다가 보다는 뭔가...

한현주 시동이 걸렸는데 바로 막 출발하지 않고, 약간 멈춰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구요.

나수민 그렇게 가겠습니다.(웃음) 시동 그리고 멈춤이 세 작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버스가 잠깐 멈춰서 그리고 이 몸을 찾는 것도 뭔가 묘하게 자꾸 시간이 멈춘 느낌이 들었어요.

김미선 [트랙터]가 저희 단막극 연작의 제목인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한현주 농촌에서 트랙터를 쓸 때 수확 거둘 때 외에도 다양한데 지금 봄이어서인지 겨울에 얼어붙은 흙을 한 번 뒤집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트랙터 자체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묵직하게 천천히 흙을 일궈나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나수민 저도 트랙터가 원래 있던 길이 아니고 거친 땅을 뚫고 가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 뚫고 가는 이미지가 <7906버스>에서는 어떤 사고를 뚫고 가는 느낌이 들었고, <빵과 텐트>에서는 몸을 뚫고 몸을 찾아서 가는 여정이었고 <하얏고 작은 점>에서 아예 모니터를 뚫잖아요. 그래서 계속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트랙터와 다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판 모르는 길을 뚫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는 길이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는 곳에 조금 돌아서 도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알아서 더 못 뚫던 것들을 다 한 번씩 돌아보는 느낌이에요.

김미선 청소년극 작업이 작가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현주 저는 <소년이그랬다>를 작업했을 때 참 착해지더라고요.(웃음) 왜냐하면 물론

작가로서 작품을 쓸 때 모든 세계를 잘 알고 쓰는 건 아니지만 더욱 조심스럽고 이렇게 잘 기울이고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내가 아는 척하거나 내가 뭘 이렇게 뭐 어떤 세계를 끌어가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 이게 맞나? 이런 이렇게 의심이나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글 쓰면서 착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작업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과정과 다양한 관계 맺기를 계속하게 되니까 그런 지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죠. 청소년들이 좋아할까 안 할까.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이 혹은 이 생각이 일반적이거나, 또 하나의 억압처럼 느껴질까봐 두려워요.

허선헌 첫째는 어떤 부채감 같은 것. 과거의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한 부채감.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미안함이에요. 제대로 좋은 삶과 터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극만 하는데, 청소년에게 좀 더 마음이 가는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자꾸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청소년스러운 것을 많이 찾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청소년스러운 거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미 내 안에 많고. 내 것을 이야기할 테니 보고 싶은 대로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요.(웃음)

나수민 제일 많이 느끼는 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요. 쓸 때 청소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의식 하게 되고, 그리고 정도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니면 얼마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발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 움직임을 어느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진짜 아까 한현주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심이 계속 따라오는 거 이게 정말 청소년 이야기가 될 수 있나?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게 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김미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립극단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터]는 이제 첫 기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바람이 있으실까요?

한현주 별도의 창작 키워드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물론 있으면 부담스럽고, 없으면 너무 다른 작품을 쓰게 될까 봐 걱정이긴 해요. 작가로서는 항상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수민 저는 공간에 대한 공유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작을 하게 될 때 공간 중에서도 작은 구석 하나를 설정해서 그것을 모두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그 공간이 바뀌고, 환기되면서 그 공간에 점이 찍히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김미선 숨겨져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작은 공간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지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넓은 면적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점으로서의 공간을 얘기하는 부분이 역시 <하얏고 작은 점> 작가이시네요. (웃음)

한현주 그런데 그런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와닿는 공간이고, 숨겨진 공간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허선헌 저는 앞으로 이런 연작을 할 때 음악 또는 조명 하나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 또는 그로부터 촉발되는 오브제도 좋구요.

한현주 청소년들의 질문과 생각에서 출발해보고 싶어요. 물론 엄청나게 많긴 하겠지만 의외로 좁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먼저 그 목소리들 안에서 어떤 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요. 2022.04.30.(토) 14:00-16:00 / 국립극단 회의실1

작가. 한현주, 허선헌, 나수민

진행 및 편집. 김미선 PD

기록. 박성연 PD

국립극단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2022 [트랙터]

트랙터+청소년극에 대한 단상

트랙터

동력

연인

개간

뚝고 나가다

뿔바퀴

목적함

40km

청소년극

세대

경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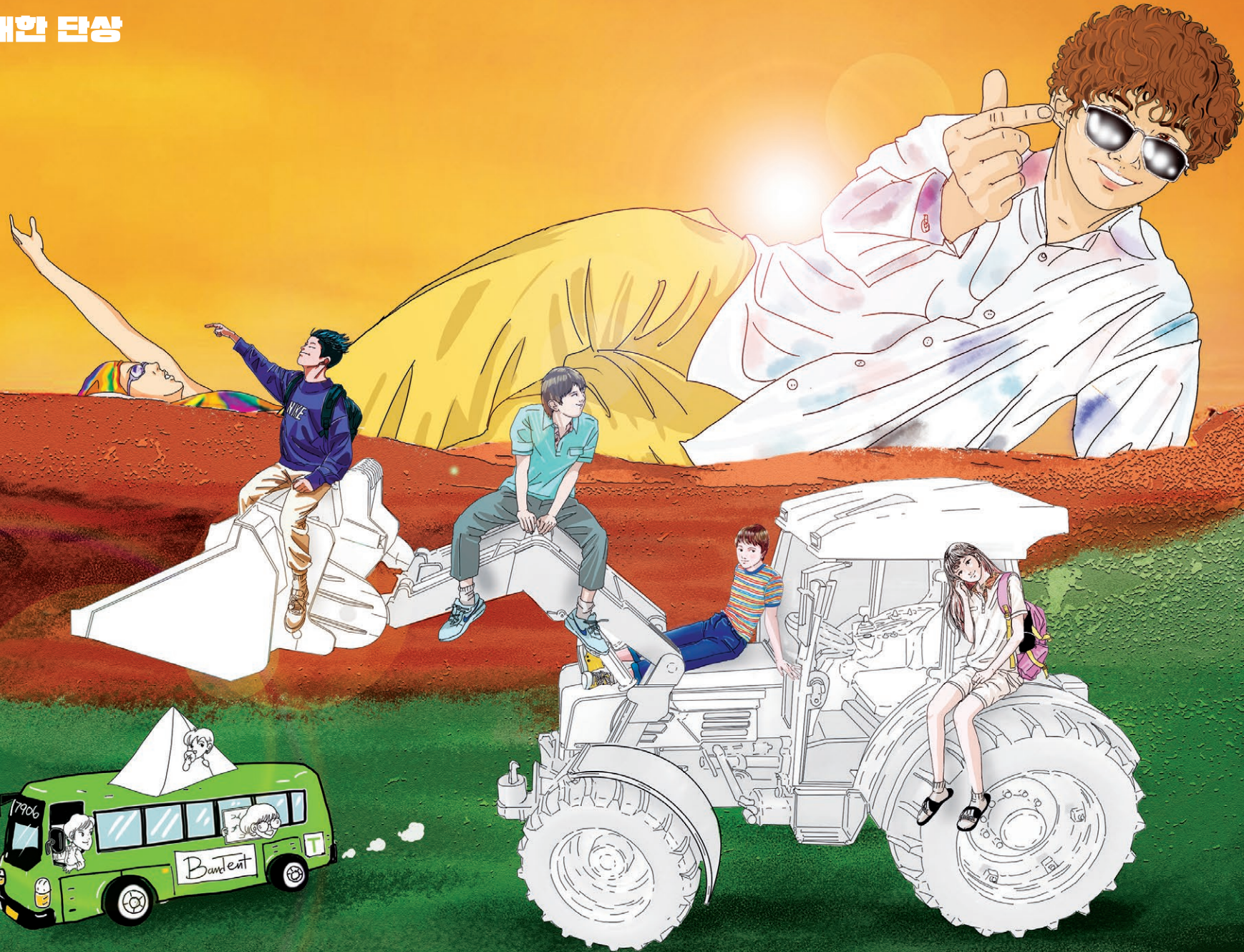
사이

공간

그때

지금

크크크







2021년

12월 17일(금)
트랙터와 연출님이 만났다.
운전대를 잡은 연출님!
트(랙터)하(이)!

12월 22일(수)
트랙터 1차 탐승은 한현주,
허선헌 작가님! 트랙터가
글을 짓는다.

12월 27일(월)
트랙터 2차 탐승 나수민
작가님! 트랙터는 글짓기에
박차를 가한다! 드릉드릉!

2022년

1월 11일(화)
작가님들과의 첫 로그라인
회의. 트랙터는 작가님들과
글을 짓는다. 트랙터에 연료가
더해진다. (짹)

1월 26일(수)
첫 트리트먼트 회의.
언 땅의 눈도 녹고 작가님들과
트랙터가 봄을 깨운다.
드릉드릉!

2월 16일(수)
첫 대본 회의. 트랙터가 발을
일군다.

3월 3일(목)
트랙터 수확의 계절! 이야기가
나왔다! 대본 완성!

3월 15일(화)

박은경, 송석근, 신윤지,
최상현. 네 명의 배우님들
트랙터 탐승 완료 (씨익-)
스케줄 확정! 첫 연습, 첫
만남. 설렌다- (두근)

3월 16일(수)

그.런.데. 연출님 코로나
확진(두둥). 트랙터,
잠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눈물)

3월 21일(월)

첫 연습은 비대면으로! 첫
리딩은 연출님의 반려견과
배우들의 반려묘도 함께했다
(웃음)

3월 24일(목)

드디어 대면연습! 자- 트랙터!
가보자고!

3월 28일(월)

상견례 날. 각자 좋아하는
'빵'을 이야기해보자며 즐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배우들과
스텝들의 코로나 확진! OTL
트랙터. 눈물 짓는다. (흠)

3월 29일(화)~4월 3일(일)
트랙터는 잠시 정차. 만나지
못해 애통해지는 마음. 서로의
몸을 살피며 하루. 이를 사흘
나흘- 한번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낸다.

4월 4일(월)

다시 비대면 연습! 비대면
일지라도 우리 마음은 안대면!
(훗)

4월 11일(월)

작가님들과 트랙터 DAY.

4월 16일(토)

청소년들과의 첫 만남!
몸에 대한 재밌는 글짓기와
자기소개로 비대면 만남은
너무 좋몸몸맘맘!

4월 18일(월)

트랙터 홍보촬영! 때때고
광내고 멋부린 찰칵트랙터!

5월 4일(수)

첫 런스루! 아직은 모든 게
어색하지만? 어쩔트랙터
저쩔트랙터! 남은시간~ 아자!

5월 5일(목)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오픈리허설'. 비록 부분
리허설이지만! 관객과 처음
만난 트랙터가 미소 짓는다
(혜혜)

5월 12일(목)

극장 셋업. 드디어 트랙터가
무대를 짓는다.

5월 13일(금)

트랙터! 마지막 연습을
마무리 짓는다. 자- 극장으로
가보자고!

트랙터 일지.
김민주(조연출) 씀.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터]

공연연계 워크숍

트랙터 [명사] 1. 무거운 집이나 농기계를 끄는 특수 자동차(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견인력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하는 작업용 자동차(출처: 두산백과)

트랙터는 ‘끌다’, ‘끌어당기다’라는 어원의 ‘-tract’에서 비롯된 이름을 지닌 특수 자동차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각종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농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작업용 자동차를 트랙터라고 부르지요. 트랙터가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체에 다양한 종류의 작업기구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소가 끄는 쟁기처럼 흙을 갈아엎고 이랑과 고랑을 내기도 하고, 씨앗을 심고 비료를 뿌리고 다 자란 농작물을 수확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운기도 일종의 소형 트랙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기구로서 집칸을 연결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농촌의 풍경, 즉 웬 시끄러운 오픈카가 도로를 툼툼툼 거리며 천천히 달리는 그 모습이 됩니다.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터]에 결합된 공연연계 워크숍은 흙을 뒤집고 잘게 부수고 그러다가 재미있는 돌덩이를 캐기도 하고 곱게 흩어진 흙 위를 다니며 다시 다져내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트랙터] 공연연계 워크숍에서 다른 흙은 청소년들의 상상과 언어입니다. 그렇게 다져서 새롭게 빚은 흙덩이를 심고서, 청소년극 [트랙터]와 워크숍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상상은 어떻게 닮아있고 또 다른 모양인지 이야기 나누기 위해 툼툼툼 [트랙터] 관객에게 달려갑니다.

국립극단 청소년극을 연습하는 두 달여의 기간에는 공연연계 워크숍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워크숍에서는 작품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을 탐구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습실에서 공연팀과 직접 만나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공연을 몇 주 앞두고선 오픈리허설에 참여합니다.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터]의 공연연계 워크숍은 청소년들의 상상과 언어를 유연하게 만나고 교환하며 즉흥적으로 가지고 놀아보았습니다. 청소년극 [트랙터]는 한 무대에서 서로 전혀 다른 세 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배우들에 의해 그것이 시간에서 시간으로, 공간에서 공간으로 점프하며 뒤물려 연결됩니다. 워크숍은 여기에 착안해 개별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를 벗어나 청소년들의 상상과 언어가 어떻게 교환되고 조각나고 다시 연결되는지 유연과 즉흥의 힘을 빌려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트랙터] 공연연계 워크숍에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협력학교 중 서울방송고등학교,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선학중학교, 양천중학교, 산돌학교에서 워크숍 참여를 자원해 준 11명의 청소년이 함께 했습니다.

워크숍 초반에는 서로를 소개하면서 나와 내 공간에서의 익숙하거나 생뚱맞은 것들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의 단어와 제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어진 공연팀과의 만남 속에서는 작품의 흔적을 담은 키워드들—몸, 길, 상상하다—을 얻게 되어, 공연팀과 함께 이 키워드에서 떨어진 무수한 단어와 문장을 수확했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단어들 중 우연히 갖게 된 말들을 질문과 규칙으로 바꾸어 보고, 우연히 만나 약속하며 교환하고 종이비행기에 글을 적어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도착한 단어와 질문, 규칙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공연팀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빵을 사고 버스를 탄 오픈리허설은 청소년들의 상상과 언어에 하나의 경험을 물어 넣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언어는 다시 부스러지고 골라져 우리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상상을 담아낸 최한한 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게 된 글들은 다시 이미지와 형태로 새로 빚어져 공연장 주변과 온라인에서 [트랙터]의 관객과 공유될 예정입니다.

첫째 주 7906 버스, 빵과 텐트, 하얗고 작은 점. 그렇다면 네 이야기의 제목은?
 — 작품 소개, 서로 소개하고 내 이야기의 제목 짓기
 둘째 주 단어의 섬 채우기. 몸, 길, 상상하다
 — 공연팀 합동 비대면 워크숍, 작품 속 키워드에서 단어 찾기

셋째 주 우연히 네게서 건네받은 단어와 문장들
 — 유연과 즉흥의 글쓰기 1
 넷째 주 단어와 문장을 형태로 빚기 위해서
 — 청소년 워크숍 관객 공유를 위한 이미지/형태 조사

다섯째 주 버스를 타고 빵 사러 가자, 하얗고 작은 점도 찾고 문장을 완성하기
 — 오픈리허설 / 유연과 즉흥의 글쓰기 2
 여섯째 주 내 일상과 상상이 단어로 부스러졌다가 형태로 다져진다
 — 공연연계 워크숍 관객 공유를 위한 이미지 작업

일곱째 주 [트랙터]에 올라타다 (예정)
 — [트랙터] 공연 관람과 피드백
 여덟째 주 [트랙터]에서 내리다 (예정)
 — [트랙터] 공연연계 워크숍 마무리와 피드백

단어와 상상, 글과 이미지/형태가 흩어졌다 다져지고 빚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우연히 그것들을 만나고 교환하고 연결했고 그렇기에 예상치 못한 상상의 틈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청소년극 [트랙터] 속

이야기와 상상을 역시 그렇게 빚어진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의 상상 또한 [트랙터] 속 상상과 함께 섞이고 교환되어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상상이 생겨나는 순간들을 맞닥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하얗고 작은 점을 발견하기! 건물 벽에, 글자 사이에, 옆 사람의 옷자락에, 혹은 내 몸에 있을지도 모르는 하얗고 작은 점을 찾아내기

“가만히 못 있는 물이란 손, 이런 게 너무 아이
같더라고요.” — “되게 좀 말도 많고 염려도 많고.
들려 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그러는 게.” —
“약간 혼자만의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저희는 빵을 사러 가서 수많은 봉황틀을 만나고 왔어요.
-저도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물렀어요. _____
수많은 색깔이 있었어요. _____ 할머니
장롱 속에도 다녀왔어요. _____ 그래서 우리 집에
값다운 느낌이었어요.

수영장 물 속에서 다들 물을 먹게 된다.

목이 마를 때 일부러 먹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수영장 물은 너무 더럽다.

그렇게 물을 마신 사람은 집에 가서 배가 아프겠지?

춤을 잘 추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물론 랩댄스는 재밌어 <소리 들으니까 생각나네!

하지만 뭐가 어때 내가 제일

즐거면 그게 제일 맛있는 춤이지

살이 찌고 있다.

뒤룩뒤룩

배야 하는메에메에...

살냄새 좋아

물론 깨끗하게 씻고...

로션 냄새랑 섞인 냄새

땃살은 출렁이고

팔뚝은 탱글하니

볼살은 쫄쫄한 걸 보니

나름 나쁘지 않아

오늘의 빵, 오늘의 동네 한 바퀴, 오늘 나는 대화의 경험을 가지고 예전에 만난 단어와 문장을 다시 들여다 봅시다. 마음에 남는 단어들을 종이에 어지러이 적어보고 단어의 길을 찾아봅시다.

그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의 형식은 무엇이든 좋아요. 시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사물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글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동안 만난 우연한 말들과 경험이 어떻게 우리 상상의 시작이 되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덥디더운 어느 여름날 길을 가다 어느 빵집이 보인다. 새롭게 생긴 빵집인가? 하곤 들어갔다. 좀 특이하고 오묘하게 생긴 인테리어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한다.

초코빵(용기를 준다), 앙버터(사랑을 가져다준다), 크루와상(행복하게 해준다)... 라는 팻말이 적혀져 있다. 좀 특이한 식당 좀 특이한 빵 신기하지만 한편으론 좀 이상한 빵집이다. 나는 이런 상황을 즐기기로 했다. (...)
-이시우

(...)

근데, 웬지 몸을 갈라 세척하고 싶은 기분이야.

누가 나 좀 손질해줘~

더워 죽겠단 말이!

타임라인을 따라서, 하얗고 작은 많은 점을 따라서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 리시트를 한 줄씩 지우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가는 거야. 7906 버스를 타고 북극곰이 있는 데까지!

이상해도 괜찮아~

왜냐면 이젠 연극이고 난 연기하고 있으니까.

(...) -박승아

(...) 다 먹고 남은 막대기에 써 있는 '한 개 더'가 나오길 바라며 오늘의 운세를 쳐보듯 기대하며 먹어본다. 사진에서도 거울 속 자신도 모두 빨간색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몇 명이 됐든 이 아이스크림을 온몸으로 표현해 본다. 그런 생동을 보며 웃기도 정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의 목적은 이 아이스크림이 유명해지기만 하면 된다. (...) -정희수

[트랙터] 공연연계 워크숍 진행

교육감독 손서희, 워크숍 진행 보조 및 기록 서현제, 워크숍 비주얼아트 및 관객공유 콘텐츠 제작 최종원,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정한솔, 이송하

[트랙터] 공연연계 청소년 워크숍 참여

서울방송고등학교 강민석, 강성은, 김은찬, 박유민,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임민서, 인천선학중학교 김도윤, 윤진서, 양천중학교 박승아, 이시우, 산돌학교 정해찬, 정희수

[트랙터] 오픈리허설 참여

[트랙터] 공연팀 배우 박은경, 송석근, 신윤지, 최상현, 조연출 김민주, 컴퍼니매니저 안희경, 작가 나수민, 한현주, 연출 권영호
협력학교 교사 과천맑은샘학교 노학선, 부천양지초등학교 김은빈, 서울청구초등학교 이우정, 양천중학교 김을, 인천선학중학교 최현준,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장현실

[트랙터] 청소년 워크숍 참여 청소년

글, 정리 교육감독 손서희

[트랙터] 공연연계 워크숍의 내용과 결과를 관객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터]의 공연연계 워크숍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언어와 상상을 이미지와 형태로 변신시켜 관객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연팀이 공연과 관련하여 제시해준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몸, 길, 상상하다—을 시작으로 수많은 단어들을 상상하고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다시 모습을 바꿔 점, 선, 면, 색깔을 재료로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단어에서 문장으로, 다른 친구들의 글쓰기에서 나의 글쓰기로, 그리고 언어에서 형태와 이미지로 맞부딪치면서 청소년들은 각자의 핵심 단어를 발견해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참여 청소년들이 마음에 품은 그 핵심 단어들이 [트랙터] 작품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형식의 즐거움과 멀리 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워크숍의 비주얼아트는 [트랙터] 공연의 무대디자인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작품 속에 지정된 장소와는 다른 뜻하면서도 세 작품을 모두 품어 안을 수 있는 무대의 이미지에서, 청소년들의 언어와 상상을 마치 추상적인 무대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오브제처럼 변신시켜보고 하나의 트랙터에 실어 끌어당기는 상상을 하며 워크숍의 비주얼아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공연 관람과 더불어 작품 바깥의 실제 청소년들의 언어와 상상을 소통함으로써, [트랙터]를 통해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청소년의 모습이 풍성하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트랙터] 공연연계 워크숍 관객 공유 콘텐츠

- 전시 기간: 2022년 5월 26일(목)~ 6월 12일(일)

- 전시 장소: 국립극단 소극장판 주변 온라인 (* 아래 QR코드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QR코드에 접속하시면 3D 온라인플랫폼 모질라허브에 전시된 [트랙터] 공연연계 워크숍의 결과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 QR코드를 통해 모질라허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2) 마이크 접근 허용 요청에 '허용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 3) '입장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 4) 닉네임과 아바타를 설정하고 3D 공간에 전시된 내용을 둘러보세요.
- 스마트폰 화면이나 컴퓨터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360도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에 두 손가락을 대고 모으면(핀치줌인) 앞으로, 두 손가락을 대고 벌리면(핀치줌아웃)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PC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커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작| 한현주 HAN HYUN CHU

*프로필 3페이지

작| 허선훈 HEO SEON HYE

*프로필 5페이지

작| 나수민 NA SU MIN

*프로필 7페이지

연출| 권영호 GWON YOUNG HO

*프로필 14페이지

드라마트루기| 김옥란 KIM OCK RAN

*프로필 17페이지

무대| 신나경 SHIN NA KYUNG

연극 <사라지다> <키스> <언니들>

뮤지컬 <사자후>

현대무용 <방문객: 느리고 빠르게
이따금 장중하게>

오페라 <1984년 침묵>

국악극 <인어공주 황옥>

국악 <연습-exercise>
<절반 이상의>

음악극 <앤> <Nowhrer, now here>

음악 <Eternity breath of macro
cosmos> 외

전시[공간디자인] <관객참여

프로젝트: 뻔한 방울토마토>

<기록으로 잊혀지는 이야기의

소리들> <찾아하는 동주민센터

성과공유대회>

조명| 김재억 KIM JAE EOK

연극 <가을 반딧불이> <래빗홀>
<반민특위> <두영웅> <좋은이웃>

<13 후르츠 케이크> <로물루스
대제> <청산리에서 광화문까지> 외

무용 <죽음의 조건> <비밀의 정원>

<매스??게임!! 구토> <골공드>

<BODY-ROCK> <공간이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

<왜곡>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
<집속의 집> 외

수상 2017 한국현대무용진흥회
댄스비전 무대예술상

의상, 소품|

이은경(EK) LEE EUN KYUNG

연극[의상] <기후비상사태:리허설>
<불가불가>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br/>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콜타임>

<붉은 낙엽> <왕서개 이야기>

<유리동물원> <닭꾸우스>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초치원
해문이> <우산도둑> <드림타임>외

연극[의상·소품] <더 나은 숲>

<영지> 외

연극[소품] <신신방> <발가락

육상천재> 외

작곡, 음악|

유태선 YOO TAE SUN

(주)이모션웨이브 음악감독

연극 <Lost Children>

무용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로>

<Memento Mori : 죽음을

기억하라> <Red Circle> <곰뱅이

텃다> <이것은 유희가 아니다>

영화 <오징어> <Layer> <구르는

돌처럼>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음악 <가온> <Tremor> <먼 곳에서

들려오는 긴 노래> <다만 어둠속을

걷는다> <Reflections of the ego>

<I yearn for>

음향| 김서영 KIM SEO YOUNG

사운드닥터 대표

연극 <혈우> <진홍빛 소녀>

<잠수괴물> <오슬로> <콘서트 -

동의> <고독한 목욕> <가옥의 원>

<낮선 얼굴로 오는가> 외

뮤지컬 <정글라이프> <우린

친구잖아 따로> <럭키스타 완판>

<도전 19벌 춘향이의 첫날밤>

<달그림자> 외

다원예술 <숲은 노래하지 않고>

조연출| 김민주 KIM MIN JU

작/연출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소는 누가 키우고, 논문은 누가
쓰나>

교육감독|

손서희 SOHN SEO HEE

드라마트루기 <2011 소년이 그랬다>

<좋아하고있어>

예술교육리서치 <영지>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교육감독 <발가락 육상천재> <2021
소년이 그랬다>

공연연계 워크숍|

서현제 SEO HYEON JE

산들이 움직인다 대표

예술교육 <사물함> <죽고 싶지

않아>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무대디자인 <Ice Wolf> <빨간

잔디> <너라는 부모> <성실로

28길> <토끼 강충> <굴러간다,&br/>살아난다!> <실수가 사라진 밤,&br/>함께 떠난> <내가 뭐 그렇게

컨템포러리한 사람도 아니고:

사과 백화점> <그것은 틀에 박혔다

자유로워지기를 반복한다>

공연연계 워크숍|

최종원 CHOI JONG WON

뉴미디어 작가

그룹전 <아티언스랩> <ART OF

ENGINEERING> <LAB 30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외

출연

박은경 송석근 신윤지 최상현

스태프

작가, 한현주 허선훈 나수민

연출, 권영호

드라마트루기, 김옥란

무대, 신나경

조명, 김재억

의상·소품, 이은경

작곡·음악, 유태선

음향, 김서영

조연출, 김민주

랩 코치, 묵소

보컬 코치, 염정윤

헤어자문, 이지연

교육감독, 손서희

공연연계 워크숍 기획, 손준형 정한울

공연연계 워크숍, 서현제 최종원

공연연계 워크숍 협력, 이승하

무대기술팀장, 정광호

무대감독, 김태연

제작감독, 경은주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레이터, 임수연

음향오퍼레이터, 박정현

음향 어시스턴트, 궤다원

의상·소품 어시스턴트, 권주하

무대진행, 김영주

의상진행, 김민주

무대제작, 스테이지(대표 : 심광영 김재인)

조명장비대여, 우리컴퍼니(대표: 전정미)

음향장비협력, 사운드닥터(대표 : 김서영)

의상·소품제작, 이케이코스튬(대표 : 이은경)

세트팀, 이상문 이찬혁 백계숙 김지현

조명프로그래머, 백하림

조명팀, 오정훈 이한용 김경호 박정원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허영손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대표 : 박신우)

응용디자인, WT(대표 : 이지선)

홍보·연습·공연사진, 그린비(장성용 정원균)

유튜브 생중계, 연두픽처스(감독 : 조윤수)

온라인 콘텐츠 영상, 정혜지

옥외광고, 영기획(대표 : 서성원)

홍보물인쇄, 인타임(대표 : 김종민)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이정현 한지선

마케팅, 이승이

온라인 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고객관리, 김태은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 박예지 이예본 임도희

최나운 황수빈 황지연

티켓, 김보전

매표안내원, 김신혜 손주형 양혜선 이승희

하우스매니저, 김수현

안내원, 김지수 이민경 고계령 박소담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고혜진 김민정 김지이 윤예진

프로그램북 제작

기획/편집, 김미선 박성연 안희경

디자인, 데저트팝(대표 : 양으뜸)

줄거리 번역, 알리샤 김

인쇄, 미림아트

제작총괄, 김성제

프로듀서, 김미선 박성연

제작진행, 안희경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병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척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팀장 신민희
예산·회계·세무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시설·용역·공사 정병욱
대외협력·평가 박예원
인사·이사회·제도 이민희
노무·구매계약·정보화·전산 주현우
비서·복무·복리후생 김시내
윤리경영·교육 김혜원

공연기획팀

팀장 김옥경
프로듀서 정채영 이정민 김훈일
박소영 윤정민 김정연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김수현 박소영
하우스·접근성매니저 김나래 임아라
연수단원 박유나

홍보마케팅팀

팀장 박보영
홍보 김태은 이정현 한지선 최윤영
마케팅 이현아 이승이 변정원
노소연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티켓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작품개발팀

팀장 정용성
작품개발·정보관리·창작극개발
한나래 조유림
아카이빙·작품개발·정보관리 이지연
청년인턴 김가은

무대기술팀

팀장 정광호
무대감독 나혜민 김정빈 김태연
제작감독 홍영진 경은주 이승수
무대기계감독 윤성희
음향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조명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의상감독 박지수
청년인턴 서동민
연수단원 이유리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김성제
프로듀서·국제교류 김미선
연구개발 손준형 정한솔
공연제작·사업기획 박성연
청년인턴 이승하

2022 시즌단원

강해진 강현우 권은혜 김광덕
김다환 김명기 김세환 김수량
김시영 김예은 문예주 박용수
박용우 서지우 신사랑 안창현
윤성원 이동준 이은정 이혜미
정대진 정슬기

2022

**국립극단
공연안내**

NTCK.ORG.KR

**밤의
사막 너머**

3.9.-3.20.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백성희장민호극장
작 신애연 연출 동기향**금조 이야기**

3.30.-4.10.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백성희장민호극장
작 김도영 연출 신재훈**커뮤니티
대소동**

3.30.-4.10.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소극장 판
연출 이진업 구성 장영**소극장판-타지**

4.20.-5.1.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소극장 판
구성·연출 강보름**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더>**

5.19.-6.12.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소극장 판
작 나수민 한현주 하선혜 연출 권영호**앨리스 인 베드**

8.24.-9.18.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명동예술극장
작 수전 손택 연출 이연주**세인트 조앤**

10.5.-10.30.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명동예술극장
작 조지 버나드 쇼 연출 김광보**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11.2.-11.27.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백성희장민호극장
작·연출 정진세**제10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2.11.-2.13.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백성희장민호극장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투:
페레스트로िका**

2.28.-3.27.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명동예술극장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철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4.20.-5.1.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백성희장민호극장
작 배해률 연출 이래은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
(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3.9.-3.20.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소극장 판
구성·연출 김미란**제5회
중국희곡 낭독공연**

4.13.-4.17.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명동예술극장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5.11.-6.5.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명동예술극장
작·연출 전윤환**스트레인지 뷰티**

9.1.-9.18.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소극장 판
작 공동창작 연출 배요섭**채식주의자**

9.2.-9.25.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백성희장민호극장
원작 한강 각색·연출 셀마 일루이**발가락 육상천재**

11.3.-11.27.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소극장 판
작 김연주 연출 서종식**스카펄**

11.23.-12.25.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명동예술극장
원작 물리에르 각색·연출 임도완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공연 예매 개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국립극단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크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최대 할인율로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 할인(전등금, 공연별 4매한)
- 제작 공연 우선 예매
- 온라인 극장 1개 작품
1회 무료 관람권(쿠폰) 제공

연극인회원

*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금, 본인 1매 한)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on.ntck.or.kr

어린이날 100주년 [포럼]



우리에게 왜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이 필요한가?



지금, 현 국립극단 부지에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극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일 시
2022. 5. 21. 토.
오후 5시 - 오후 7시

장 소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문의
국립극단 콜센터
1644-2003

여는
목소리

상상을 해보자

엄현희 (평론가) & 박은경 (배우) & 김성재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인사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극장과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독립의 초석

김광보 (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야기
하나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

방지영 (아시테지코리아:(사)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이야기
둘

어린이청소년 예술 공간에 대한 상상력

지정우 (건축가, 이유헤스플러스 건축 대표)

이야기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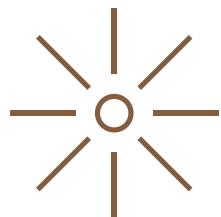
세계동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의 필요성과
공간 구성, 앞으로의 과제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참가자와
대화

의견, 질문, 토론, 공감 나누기

참가자 및 관객 전원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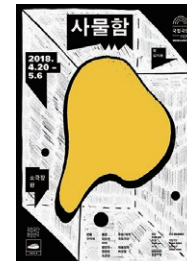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2011년 5월 2일 문을 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공연제작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제작 및 지역 공연, 작품 개발 및 연구,
예술교육이 있다.

국립극단 청소년극

창작극, 재창작과 각색, 해외 공동제작,
지역공연 등 매년 2-3편의 청소년극을 올리고
있다. 2011년 <소년이그랬다>를 시작으로 총
26편을 제작, 503회 공연, 전국 43곳 순회,
총 82,000여명의 관객을 만났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지오가 호흡을 완전히 가다듬으면,
막.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